

A vibrant, multi-colored rainbow arches across the top and bottom of the page. The background is a solid bright yellow. The title '화폐와 놀기' is written in large, bold, blue Korean characters. The number '2' is inside a blue circle. Below the title, the words '반전학습' are in red circles. The bottom section contains text about the program's target audience, route, and duration, separated by dotted lines.

2

화폐와 놀기

반전학습

대 상 6세 이상 어린이

관람동선 건물모형 앞 ➔ 우리의 중앙은행 ➔ 화폐의 일생 ➔ 화폐광장
➔ 화폐기기실, 중2층 휴게실 ➔ 모형금고 ➔ 세계의 화폐실

소요시간 40분 내외

본 체험학습지 저작권은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에 있으며,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① 건물모형 앞

여기가 어디일까요?

선생님! 내용을 읽고 지도해 주세요.

이곳은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이에요.
궁전처럼 예쁜 이 건물은 1912년에 지어졌어요. 2012년이
면 100살이나 된대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랍니다.



② 우리의 중앙은행

돈은 누가 만들까요?

선생님! 내용을 읽고 지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돈은 누가 만들까요? 돈을 보면 답이 보여요.
소리 내서 읽어 볼까요? **한! 국! 은! 행!**

글씨를 써 보세요



선생님! 지폐는 종이로 만들었나요?

☞ 선생님! 내용을 읽고 지도해 주세요.

나는 엄마, 아빠의 지갑 속에 들어있어요.
네모난 모양의 커다란 돈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지폐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종이로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옷감으로 쓰는
면섬유랍니다.

종이보다 튼튼해서
쉽게 찢어지진 않지만
나를 함부로 다루면
아야, 아야 아파요.



반짝이를 찾아라

☞ 선생님! 현장에서 직접 지도해 주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네모와 동그라미는 어느 돈에 있을까요?
네모난 반짝이는 **연두색 돈**(만원)에 있습니다. 그럼
동그란 반짝이는 어디 있나요? **주황색 돈**(오천원)에 있네요.

우리 반짝이가 없으면 진짜 돈이 아니랍니다. 내 이름은 **홀로그램**이에요.

참, 여러분 가짜 돈을 만들어도 될까요? 우리나라 돈은 한국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짜 돈을 만들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 간대요.



⑤ 화폐과학

우리나라 돈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요?

☞ 선생님! 내용을 읽고 지도해 주세요.

50원짜리 동전에 들어 있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맛있게 먹는 쌀밥을
만들어 주는 '벼'랍니다.



⑥ 화폐과학

앗! 이것도 돈이라고요?

☞ 선생님! 내용을 읽고 지도해 주세요.

먼 옛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돈으로 쓴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쁘지만 구하기 어려운
조개껍질을 돈으로 썼대요.



돈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 선생님! 내용을 읽고 지도해 주세요.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열매나 과일을 따 먹었지요.

그런데 물고기만 잡아먹는 사람들이 문득 과일이 먹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과일만 먹는 사람들이 물고기가 먹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편해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과 산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물고기랑 과일을 바꿔 먹었습니다. 겨울이 됐어요. 날씨가 추워지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따뜻한

털옷이 필요했어요. 마침 털옷을 많이 갖고 있는 사냥꾼을 만났어요. 바닷가 사람들은 반가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고기와 당신이 갖고 있는 털옷을 서로 바꿉시다.”라고 했더니, 사냥꾼은 “흥, 이 털옷이 더 귀하니 당신들의 물고기와는 절대 바꿀

수 없소.”라고 콧방귀를 끼었어요.

사실 털옷을 갖고 있던 사냥꾼이 진짜 갖고 싶어 했던 것은 쌀이었기 때문에 바꿀 줄 수가 없던 거죠. 속이 상한 바닷가 사람들과 사냥꾼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갖고 싶어 하면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갖고 다니기 쉬운 물건을 주면 원하는 것을 받기로 서로 약속했지요. 이러한 물건들이 아주 옛날 사람들이 쓰던 돈이 되었습니다.



⑧ 화폐기기실, 중2층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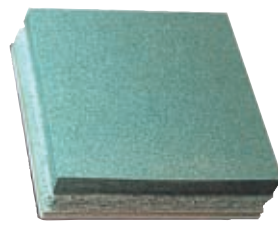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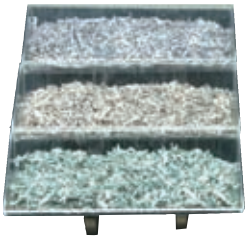
못쓰게 된 돈이 다시 태어났어요!

☞ 선생님! 내용을 읽고 지도해 주세요.



화폐기기실 ▶

낙서를 하거나 찢어지거나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돈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못쓰게 된 돈은 집을 지을 때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물건으로 다시 태어난답니다.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돼요. 돈을 새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착한 어린이는 돈을 깨끗이 써야겠지요?



◀ 중2층 휴게실

이것은 못쓰게 된 돈을 잘게 찢어 넣어 만든 의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못쓰게 된 돈을 다 모으면 큰 트럭으로 200대에 꼭 찬대요. 엄청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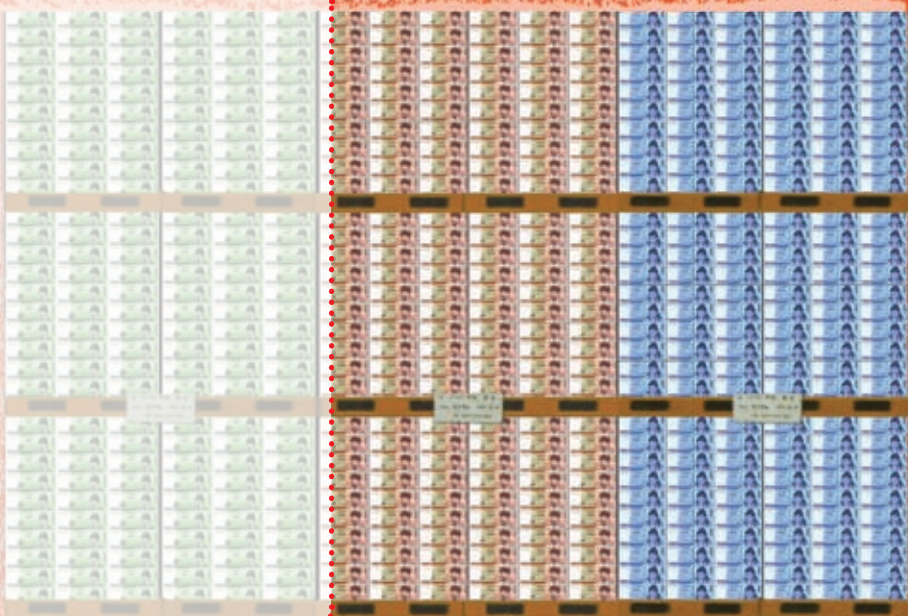
⑨ 포형 금고

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 선생님! 내용을 읽고 지도해 주세요.

돈이 엄청나게 많네요. 어디일까요?

돈을 안전하게 넣어두는 **금고**랍니다. 연두색 돈(만원), 주황색 돈(오천원), 파란색 돈(천원)이 가득 쌓여있네요.



온 세상의 돈들이 우주를 떠다녀요

☞ 선생님! 내용을 읽고 지도해 주세요.

여기는 U-money world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돈이 두둥실 떠다니네요. 그럼 떠다니는 돈 위에 손을 살짝 대볼까요? 앗! 돈에 손을 대니 새로운 화면이 나오네요. 자세히 볼까요.

아! 어느 나라 돈인지, 어떤 그림이 돈에 그려져 있는지 알려주고 있네요.

